

한양대학교 2015학년도 논술전형



인문계열 (1)

성명		지원 학부·학과		수험 번호										
----	--	----------	--	-------	--	--	--	--	--	--	--	--	--	--

유의 사항

1. 75분 안에 답안을 작성하십시오.
2. 답안지는 검정색 펜(볼펜, 연필, 샤프)으로 작성하십시오.
3. 답안지와 문제지, 연습지를 함께 제출하십시오.
4. 다음 경우는 0점 처리됩니다.
  - 1) 답안지를 검정색 펜(볼펜, 연필, 샤프)으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 2) 자신의 신원을 드러내는 표기나 표현을 한 경우
  - 3) 답안을 해당 답란에 작성하지 않은 경우

※ 감독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다음 장으로 넘기지 마시오.

[문제] 다음은 추사 김정희의 작품 「세한도(歲寒圖)」이다. (가)를 참고하여 (나)에서 제시된 방법에 따라 「세한도」의 의미를 해석한 다음, (나)와 같은 관점의 문제점을 (다)를 바탕으로 지적하고, (다)와 같은 관점에서 「세한도」의 ‘집’을 중심으로 자신이 감상한 바를 간략하게 서술하시오. (1,000자)



(가)

지난해엔 『만학(晩學)』과 『대운(大雲)』 두 책을 보내오고 올해에는 또 『우경문편(藕耕文編)』을 보내주니 이 책들은 모두 세상에 늘 있는 것이 아니로다. 천만 리 먼 북경에서 사왔고 여러 해에 걸쳐서 얻은 것이니 일시에 가능했던 일도 아니다. 지금 세상의 물결은 온통 권세와 이익만을 좇는데 이런 일에 그처럼 마음과 힘을 쏟았으니 이는 권세와 이익을 좇지 않음이다. 외려 세상 사람들이 잇속을 좇듯 바다 밖 초췌한 사람에게 마음을 준 것이다. 사마천이 이르기를, 권세와 이익으로 만난 이들은 권세와 이익이 다하면 사귀어 멀어진다고 하였다. 그대 또한 도도한 세상 물결 중의 한 사람이거늘 그러한 잇속 밖으로 벗어났으니, 권세와 이익으로 나를 대하지 않는 것인가, 사마천의 말이 틀린 것인가! 공자께서는 “날씨가 추워진 뒤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늦게 시듦을 알게 된다.”라고 하셨다. 송백(松柏)은 추워지기 전이나 뒤나 똑같은 송백이건만, 성인께서 특별히 ‘날씨가 추워진 뒤’를 힘주어 말씀하셨다. 이제 그대가 나를 대함은 예전이라고 더 잘한 게 없고 뒤라고 더 소홀히 한 것도 없으니, 예전의 그대야 일컬을 게 없지만 이후의 그대는 성인에게서 칭찬받을 만하지 않은가! 성인께서 특별히 일컬으심은 그저 뒤늦게 시드는 정절과 지조 때문만은 아닐지니, 또한 날씨가 추워진 때에 느껴 일어난 바가 있기 때문이다. 아, 풍속이 순후했던 전한(前漢) 시대 급암(汲黯)과 정당시(鄭當時)처럼 어진 사람도 빈객이 그들의 형편에 따라 모이고 흩어지곤 했다. 그래도 하규(下邳)의 적공(翟公)이 대문에 써 붙인 말 [\* 주 :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았을 때, 한 사람은 가난하고 한 사람은 부유할 때, 한 사람은 신분이 높고 한 사람은 신분이 낮을 때, 그 사귀는 정과 태도를 볼 수 있다.] 은 박절하기가 그치지 않았다. 슬프다, 완당 노인은 쓰노라.

[도움말] 「세한도」는 추사 김정희가 제주도에서 5년째 유배 생활을 하던 1844년, 자신을 대하는 제자 이상적의 한결같은 마음에 감격하여 그에게 그려 보낸 작품이다. 추사는 그림 왼편에 따로 공간을 마련하여 「세한도」의 창작 경위를 위와 같이 적었다. 당시 추사의 나이는 59세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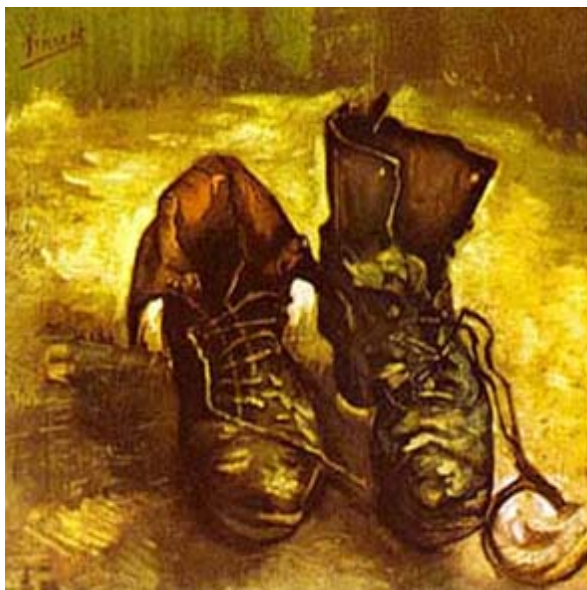
(나)

도상학(iconography)이라는 용어는 두 개의 그리스 단어, '이미지'를 뜻하는 '에이콘(eikon)'과 '기록하기'를 뜻하는 '그라페(graphe)'에서 유래했다. 이러한 어원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미지는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 제작된 것이라는 관점에서 이미지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해석하는 것이 바로 도상학이다. 이를 위해 도상학자들은 예술 작품에 나타난 정보를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단계에서 출발해, 관습적 의미를 중시하여 문헌 자료와 지식을 통해 작품의 주제나 개념을 이해하는 단계를 거쳐, 궁극적으로는 국가, 시대, 종교, 철학적 신조 등을 파악하여 작품의 본질적 의미를 해석하는 것으로 나아간다. 요컨대 도상학자들에게 회화 작품은 단순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를 '읽어내야' 하는 대상인 것이다. 이를 위해 도상학자들은 문화적 코드를 정확하게 독해하여 작가의 의도를 복원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1305년에 제작된 조토의 프레스코화 「성탄」을 보자. 헛간에서 한 여자가 천으로 싼 어린애를 어머니에게 넘겨주고 있으며, 그 앞에는 나이 든 남자가 줄고 있고, 주변에 황소와 당나귀, 흰 양 여섯 마리와 검은 염소 한 마리가 있다. 그런데 관습적으로 보면 이 그림은 『성경』을 토대로 한 작품으로서 그림 속의 어머니는 마리아, 그 앞의 남자는 요셉, 헛간은 마리아가 예수를 출산한 마구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된다. 하지만 이 작품에서 해산을 마친 마리아는 깨어 있는데 요셉은 앉아서 졸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리스도의 실제 아버지는 신이지 요셉이 아니기 때문에 기독교적 가치관에 따르면 속세의 아버지인 요셉을 성탄이라는 상징적 사건에서 중요하게 다룰 수 없기 때문인 것이다.

(다)



“이 구두라는 도구의 밖으로 드러난 내부의 어두운 틈으로부터 들일을 하려 나선 이의 고통이 응시하고 있으며, 구두라는 도구의 실박한 무게 가운데는 거친 바람이 부는 넓게 펼쳐진 평탄한 밭고랑을 천천히 걷는 강인함이 쌓여 있고, 구두 가죽 위에는 대지의 습기와 풍요함이 깃들여 있다. (.....) 이 구두라는 도구에 스며들어 있는 것은 빵의 확보를 위한 불평 없는 근심과 다시 고난을 극복한 뒤의 말없는 기쁨과 임박한 아기의 출산에 대한 전전긍긍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의 전율이다. 이 구두라는 도구는 대지에 속해 있으며, 촌 아낙네의 세계 가운데서 보존되고 있다.”

빈센트 반 고흐의 「구두」에 대한 독일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의 글이다. 그에 따르면 예술은 예술가의 주관성의 표현이 아니다. 예술의 본질은 좀 더 깊은 근원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다. 그림이란 다른 무엇이기 이전에 우선 물감이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림은 이런 ‘사물적 차원을 넘어서는 또 다른 어떤 것’이며, 이 ‘다른 어떤 것’이 바로 예술의 본질을 이룬다. 하이데거에게 중요했던 것은 작가의 의도가 아니라 작품 그 자체가 말하게 하는 것, 곧 구두로 하여금 말을 하게 내버려두는 것이다. 그리하여 고흐의 그림은 구두라는 도구가 진정으로 무엇인지를 열어 보여준다. 그 결과 구두에 대한 관습적인 생각 속에 감추어져 있던 구두라는 존재의 참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

이처럼 하이데거의 견해에 따르면 예술의 진리란 근대 미학에서 말하는 재현으로서의 진리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 재현의 진리는 묘사 대상이 되는 존재자와의 일치, 곧 모방의 진리를 뜻한다. 하지만 작품 속에 정립되는 진리는 은폐된 진리를 드러내는 개시의 진리인 것이다. 작품을 현실 속 대상의 모방으로 바라보고, 그 대상을 작가 관련 맥락 속에 귀속시키고, 나아가 작가의 자의식의 표현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근대 미학의 특징이며 하이데거가 무너뜨리고자 했던 바로 그것이다.

한양대학교 2015학년도 논술전형



인문계열 (2)

성명		지원 학부·학과		수험 번호										
----	--	----------	--	-------	--	--	--	--	--	--	--	--	--	--

유의 사항

1. 75분 안에 답안을 작성하십시오.
2. 답안지는 검정색 펜(볼펜, 연필, 샤프)으로 작성하십시오.
3. 답안지와 문제지, 연습지를 함께 제출하십시오.
4. 다음 경우는 0점 처리됩니다.
  - 1) 답안지를 검정색 펜(볼펜, 연필, 샤프)으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 2) 자신의 신원을 드러내는 표기나 표현을 한 경우
  - 3) 답안을 해당 답란에 작성하지 않은 경우

※ 감독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다음 장으로 넘기지 마시오.

[문제] (가)에서 화자가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서술한 다음, (나)와 (다)를 활용하여 그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나)와 (다)를 바탕으로 그가 더욱 행복하게 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삶의 태도를 제안하시오. (1,000자)

(가)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힘없는 책갈피는 이 종이를 떨어뜨리리  
그때 내 마음은 너무나 많은 공장을 세웠으니  
어리석게도 그토록 기록할 것이 많았구나  
구름 밑을 천천히 쏘다니는 개처럼  
지칠 줄 모르고 공중에서 머뭇거렸구나  
나 가진 것 탄식밖에 없어  
저녁 거리마다 물끄러미 청춘을 세워 두고  
살아온 날들을 신기하게 세어 보았으니  
그 누구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니  
내 희망의 내용은 질투뿐이었구나  
그리하여 나는 우선 여기에 짧은 글을 남겨 둔다  
나의 생은 미친 듯이 사랑을 찾아 헤매었으나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노라

— 기형도, 「질투는 나의 힘」

(나)

1990년대 초, 심리학자 카너먼과 의사 레델마이어는 대장내시경 체험 연구를 통해 어떤 방식의 검사가 환자들이 고통을 덜 느끼는지 알아보려고 했다. 그들은 피험자를 두 집단으로 나누어, A 집단에게는 고통이 서서히 증가하다가 14분 정도에서 정점을 찍은 다음 서서히 줄어드는 방식으로 28분 동안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고, B 집단에게는 고통이 처음부터 급격하게 상승하다가 8분 정도에 정점을 찍고 곧바로 끝나는 방식으로 내시경 검사를 시행했다. 그리고 양 쪽 모두 피험자들은 매 1분마다 그 순간 느끼는 고통의 정도를 0(전혀 고통 없음)에서 10(참을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움)까지로 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실험이 끝난 후 피험자들은 내시경을 받는 동안 겪었던 전반적인 고통의 정도를 보고하도록 했다.

실험 결과, 피험자들은 두 집단 모두 정점에서 느낀 고통의 강도는 비슷하게 보고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들이 느낀 전반적인 고통의 정도는 B 집단이 A 집단보다 크게 보고되었다. 이는 내시경 검사 진행 과정에서 매 1분마다 피험자가 보고한 고통의 정도를 모두 합한 ‘총 고통량’을 비교한 것과 상치되는 결과이다. 즉 고통 경험을 기억하고 평가할 때, 피험자들은 고통의 지속 시간보다 고통이 어떻게 종결되었는지에 더 초점을 두어 고통을 기억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카너먼은 경험 자아와 기억 자아의 구별을 도입했다. 경험 자아는 이 실험에서 매 1분마다 “지금 아픈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자아이고, 기억 자아는 실험 후 “전반적으로 어땠는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자아이다. 경험 자아는 28분 동안 지속된 내시경 검사에서 훨씬 더 큰 고통을 겪었다고 보고하는 것과 달리, 기억 자아는 8분 동안 지속된 검사가 더 고통스러웠다고 기억하는 것이다.

경험 자체와 경험에 대한 기억 사이의 혼동은 우리 누구나 갖고 있는 강력한 인지적 착각이다. 우리는 지금은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는 평범한 펜션에서 즐겁게 지낸 휴가보다 바가지요금에 소매치기까지 당했던 한여름 성수기의 로마 여행을 더 멋진 여행으로 기억하는 경향이 있다. 비합리적이라 할 수 있는 이런 판단을 하게 하는 주체가 바로 기억 자아이다. 이 경우 경험 자아는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 기억 자아는 우리 삶의 경험 속에서 점수를 매기고, 의미를 부여하고, 결정을 내린다.

하지만 매 순간을 중시하는 경험 자아라면 이와 다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경험 자아의 관점에서 인생의 모든 순간은 그것이 기억할 가치가 있는지와 무관하게 동등하게 취급된다. 경험 자아 입장에서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매 순간 경험하는 행복감이 얼마나 커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인생을 살면서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순간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순간이 기억나기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어린 시절 바이올린을 연습하며 보냈던 한 시간은 이후의 삶에서 음악을 연주하거나 감상하는 수많은 순간이 더욱 행복한 경험이 되도록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시간일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두 자아의 이해관계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가령 행복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기억 자아와 경험 자아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 경험 자아가 매 순간 느끼는 행복감과 우리가 그로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얻는 기억 자아의 행복 판단이 모두 중요하기 때문이다.

(다)

무슨 일이든 회피하고 두려워하며 어떤 자리도 지켜 내지 못하는 사람은 비겁한 사람이 된다. 반면 무슨 일이든 결코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모든 일에 뛰어드는 사람은 무모한 사람이 된다. 마찬가지로 모든 즐거움에 탐닉하면서 어떤 것도 삼가지 않는 사람은 무절제한 사람이 된다. 반면 즐거움이라면 전부 회피하는 사람은 일종의 목석같은 사람이 된다. 그러므로 절제와 용기는 지나침과 모자람에 의해 파괴되고 중용에 의해 보존된다.

그렇다면 세 가지 성향이 있는 셈인데, 그 중 둘은 악덕으로, 하나는 지나침에 따른 악덕이고 또 다른 하나는 모자람에 따른 악덕이다. 나머지 하나가 중용이라는 탁월성의 성향이다. 이 세 성향은 모두 각기 다른 모든 성향에 대해 대립적이다. 용감한 사람은 비겁한 사람에 비해서는 무모해 보이고 무모한 사람에 비해서는 비겁해 보인다. 마찬가지로 절제 있는 사람은 목석같은 사람에 비해서는 무절제한 사람으로 보이고 무절제한 사람에 비해서는 목석같은 사람으로 보인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모자람의 성향이 지나침의 성향보다 탁월성에 더 많이 대립하고, 또 다른 경우에는 역으로 지나침의 성향이 모자람의 성향보다 탁월성에 더 많이 대립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용기에 더 대립하는 것은 지나침인 무모함이 아니라 모자람인 비겁이며, 절제에 더 많이 대립하는 것은 모자람인 목석같은 사람이 아니라 지나침인 무절제이다.

중용을 실천하는 진실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화를 내는 일, 돈을 주거나 써버리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일이지만, 마땅히 주어야 할 사람에게, 마땅한 만큼, 마땅한 때에, 마땅한 목적을 위해, 그리고 마땅한 방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결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며, 쉬운 일도 아니다. 바로 그런 까닭에 이런 일을 잘하는 것은 드물고, 칭찬받을 만한 일이며, 고귀한 일이다.

그런데 탁월성을 낳고 성장하게 하는 기원들이나 원인들은 탁월성을 파괴하는 기원들이나 원인들과 동일하다. 그뿐 아니라, 중요한 것은 탁월성의 활동 역시 동일한 기원들이나 원인들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그렇기에 용기와 절제와 같은 탁월성은 그 탁월성에 도달하려는 노력에 의해 길러질 수 있다. 이것은 다른 더 분명한 경우에도, 가령 체력과 같은 경우에도 맞는 말이다. 체력은 많은 음식을 섭취하고 많은 운동을 견디는 일에서부터 생겨나며, 이런 일들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체력이 강한 사람이다. 탁월성의 경우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우리는 먼저 즐거움을 삼가는 일을 통해 절제 있는 사람이 되며, 절제 있는 사람이 되면 즐거움을 삼가는 일을 가장 잘할 수 있기 때문이다.